

# 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5. 6

3<sup>rd</sup> Week

## 목 차

### ■ 본문

1. ETSI, 재난 시 응급통신 시나리오에 관한 신규규격 발표
2. 중국 IMT-2020, 제3차 5G 정상회담 개최

■ 기타소식 ..... 6 쪽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# 1. ETSI, 재난 시 응급통신 시나리오에 관한 신규규격 발표

(ETSI New Specifications on Scenarios for Emergency Communications in Disasters)

보도날짜 2015.06.02

출 처 ETSI

사 이 트 <http://www.etsi.org/news-events/news/970-2015-06-press-etsi-new-specifications-on-scenarios-for-emergency-communications-in-disasters>

- 재난 상황에서는 긴급구조기관(의료팀, 구조팀, 원조팀 등)이 재난 지역의 효과적인 통제  
제를 위하여 지역적인 응급통신 네트워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
  - 본 네트워크의 효율적 설정을 위해, 긴급구조기관의 표준 기반 통신 용량 및 특징을  
추정하는 것이 적절함
  - 시스템과 장비,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위성 네트워크 운영자와 장비  
제조업체, 운영자 등은 음성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
- ETSI의 위성 지구 스테이션 시스템 관련 기술위원회(TC SES, Technical Committee for  
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)의 업무는 응급통신에 관한 “참조 시나리오”를  
구체화하는 것으로, 재난 관리 및 ICT 분야 전문가그룹과 ETSI 대표들이 작성함
  - 현재 시나리오에는 표준화된 “사용자” 요구(실질적 현장 활동 기반, 통신기술과 무관,  
기술적 요구사항 도출 요소 제공)를 반영한 대중적인 재난 특징이 포함되지 않음
- 사양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포함
  - ① TS 103 260-1: 도시에서 기술 사양에 지정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,  
광범위한 긴급 구조대원의 파견, 다양한 구조 활동 가능(소방, 수색  
및 구조, 응급처치, 비상대피 등). 위성 통신은 비활성 인프라로 대체  
가능
  - ② TS 103 260-2: 시골에서 기술 사양에 지정된 큰 교통사고(기차 충돌)가 일어났을 때,  
긴급 구조대원이 작은 영역에 집중되고, 구조 활동이 몇 개의 전문분  
야로 제한됨. 위성 통신은 최소한의 기존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는  
통신 허브를 제공함

■ "참조 시나리오"는 아래의 정의를 포함

- ① 응급 상황을 야기하는 사건
- ② 구조 상황(수색 구조, 물류, 응급처치, 응급 대피 등)과 주요 관련 매개변수
- ③ (구조)행동이 필요한 정보의 교환
- ④ 행위자의 통신 교환 종류와 넓은 범위의 원조(dimensioning aids)
- ⑤ (구조)행위자를 배치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위상 모델 정의

## 2. 중국 IMT-2020, 제3차 5G 정상회담 개최

보도날짜 2015.06.04

출 처 CCSSA

사 이 트 <http://www.ccsa.org.cn/worknews/content.php3?id=3118>

- IMT-2020\* 추진그룹은 중국통신표준화협회(CCSA)와 공동으로 북경에서 5월 28일~29일 제3차 IMT-2020(5G)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, 국내외 산학연 300여명의 전문가 및 대표자가 참석함

\* IMT-2020(5G) 추진그룹(이하 추진그룹이라 함)은 2013년 2월 공업정보화부,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고,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의 촉진 및 국제교류 및 협력 플랫폼을 개발함. 중국의 정보통신연구원이 그룹장 및 사무국 역할을 함. 이번 정상회담에는 유럽연합(EU)의 5G PPP, 일본의 5G 모바일포럼, 한국의 5G포럼 등 국제조직의 위원장이 초대되었음

- 공업정보화부의 수석 엔지니어 장펑(张峰)은 5G 분야가 국제 협력 및 연구개발을 증가시키며 5G 통합 혁신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함
- 정상회담의 주제는 "5G기술 아키텍처"로, 글로벌 업계를 맞이하여 <5G 무선 기술 아키텍처>와 <5G 네트워크 기술 아키텍처> 백서를 발표함
- 이번 기술 백서의 발표는 2015년 5월 <5G 비전 및 요구> 백서, 2015년 2월 <5G 개념> 백서의 후속 작업을 진행시킨 것임
-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의 원장이자 추진그룹의 그룹장인 카오슈민(曹淑敏)은 5G 요구사항과 기술, 표준, 주파수 스펙트럼, 국제협력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주요 연구 진행 과정 및 후속작업 계획 등을 발표함

- <5G 무선기술 아키텍처>에서는,

- ① 5G가 앞으로 통일된 무선 기술 인터페이스가 될 것,
- ② 4G와 새로운 무선 인터페이스인 5G(낮거나 높은 주파수 포함)의 두 기술 노선이 함께 발전할 것,
- ③ 5G는 새로운 형태의 다중주소, 대규모 안테나, 울트라 고밀도 네트워킹 및 전체 스펙트럼 액세스 등의 핵심 기술에 의지할 것,
- ④ 유연한 기술 및 매개변수를 통해 연속 광역 커버, 핫스팟 고용량, 낮은 레이턴시 및 저전력 대연결 등에서의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방안 형성으로,

2020 및 그 이후 미래의 모바일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업계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함

■ <5G 네트워크 기술 아키텍처>에서는,

- ① 5G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SDN/NFV 구축 플랫폼을 위주로 특징,
- ② 분리 전송 통제 및 리팩토링 기능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기본 계획으로, 5G의 복잡한 시나리오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향상,
- ③ 가상화 기술을 기초로 네트워크 자원 배열 및 네트워크 조각 및 유연한 배치를 실현시켜

단계적 비즈니스 경험 및 고효율의 네트워크 운영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함

■ ITU, 3GPP 등 국제 표준화 조직인 이미 5G 작업 일정을 확인함

- ITU는 2015년 6월에 5G 비전을 완성할 예정이고, 2017년에 5G 국제 표준 수집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. 3GPP는 2016년 5G 표준 연구를 시작할 예정임

## 기타 소식

### 스웨덴, 개방형 표준 사양 변경

- ▶ 출처 : <https://joinup.ec.europa.eu/community/osor/news/sweden-refines-specifications-open-standards> (2015.06.04.)
- 스웨덴의 정부 구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매 시, 표준을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ICT 표준 목록을 소정부분 조정함